생두 수입 절차 가이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로스터와 소비자들은 점점 더 나은 퀄리티의 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커피 소비의 윤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책임까지 이슈로 떠오르며, 다이렉트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과 열망도 크게 커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농장과의 직거래 수입을 바로 진행하기에는 노하우도, 네트워크도, 자본도 부족한 것이 현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경험이지만 그동안 알 수 있었던 수입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당장 수입을 진행할 경영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의 커피가 들어오는지 알고 커피를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생두 수입 진행 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 "구매할 물품의 선정"입니다. 다이렉트 트레이드 외에도 해외에서 생두를 구매하는 루트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션 프로그램을 통한 경매 형태의 구매, 두 번째는 생두 수출입 전문회사를 통한 구매입니다.

옥션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_

스톤웍스(coffee.stoneworks.com)와 컵오브엑셀런스(www.cupofexcellence.org)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그 해의 옥션 진행 일정이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각 옥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별 회원 등록(register)이 필수이며, 회원 등록과 동시에 경매 물품의 샘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 결제가 완료되면 옥션이 진행되기 약 2~3주 전 샘플이 발송됩니다. Fedex, UPS, DHL 등을 이용한 항공화물로 신속하게 한국까지 운송되며, 국내 도착 시에는 해당물품이 견본품임을 증명하는 사유서 제출 및 식물 검역 대상 상품에 대한 수입 신고의 진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샘플 물품의 수입 신고는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portal.customs.go.kr)에서 간단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취 급 품 목	
스 톤 웍 스	컵 오 브 엑 셀 런 스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 과테말라 엘 인헤르토 농장, 과테말라 산타펠리사 농장, 브라질 다테라 농장, 베스트 오브 파나마 등의 옥션을 진행합니다. 1랏 당 수량이 적어 구매단위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포장 단위는 1박스 기준 50파운드 (약 22.7kg)이며, 1랏당 3-4박스(150파운드) 수량이 일반적이며, 많아도 6박스 정도의 수량으로 구성됩니다. 농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르완다, 부룬디, 콜롬비아, 브라질(Late Harvest, Early Harvest) 등 10여개 산지국의 커피에 대한 옥션을 진행합니다. 스톤웍스에 비해 1랏의 수량이 많은 편이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공동구매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포장 단위는 1박스 기준 30kg입니다. 1랏 당 박스의 수량은 국가별, 출품 농장별 상이하나, 보통 20에서 40 사이입니다.

등 록 방 식	
스 톤 웍 스	컵 오 브 엑 셀 런 스
사이트로의 회원 가입은 별도로 없으며, 경매 항목별로 각각 참가 등록을 받습니다. 샘플 역시 각 농장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샘플 및 옥션 참가 등록 비용은 한 항목 당 $200에서 $250선입니다. 스톤웍스 홈페이지의 HELP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등록과 샘플 구매에 관한 가이드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1년 단위의 컴퍼니 멤버쉽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회비 $295의 Community Level과 $3,580의 Benefactor Level, 두가지 형태의 멤버쉽이 있습니다. 옥션 참가 기회 제공, 국제 심판관 신청, 커피 정보 조회가 가능한 점은 동일하지만, 전체 옥션에 대한 샘플 및 접근 기회가 제공되는 Benefactor Level과 달리 Community Level의 멤버에게는 기본적으로 단 한 국가의 샘플 및 옥션 접근 기회만이 주어집니다. 더 많은 샘플과 옥션 참여를 원한다면 추가비용 결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샘플 1 국가당 $250, 옥션 1 국가당 $30)

옥 션 진 행

옥션 진행일 하루 전에는 옥션 진행을 공지하는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보내옵니다.
경매는 도쿄/서울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스톤웍스 오후 10시 30분, 컵오브엑셀런스 오후 10시에 시작합니다. 스톤웍스는 이메일을 통해 로그인을 위한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지해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매 옥션마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컵오브엑셀런스는 멤버쉽 등록시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옥션마다 각각 다른 비더넘버를 부여받게 되며, 이 넘버를 통해 본인의 옥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컵오브엑셀런스의 경우 최소단위 입찰금액이 $0.10으로 전해져있으나, 스톤웍스는 옥션랏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션 참가자들이 계속적으로 비딩 금액을 업데이트하는 한, 옥션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모든 랏을 대상으로 3분 동안 비딩 금액 업데이트가 전혀 없을 시, 옥션은 종료되게 됩니다. 스톤웍스와 컵오브엑셀런스 모두 옥션 이전에 Practice Auction 페이지를 제공하므로, 처음 참여하는 사용자도 어렵지 않게 옥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별 옥션 진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스톤웍스 : http://coffee.stoneworks.com/auction/index.cfm?page=instructions_
- 컵오브엑셀런스 : http://www.allianceforcoffeeexcellence.org/en/auctions/2014-honduras-program-practice/how-to-bid
(컵오브엑셀런스의 옥션 규율은 2014년 온두라스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입니다.)

낙 찰 성 공 후

옥션에서 성공적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스톤웍스 - "옥션명 Coffee Auction Winners.", 컵오브엑셀런스 - "Congratulations! You have secured a lot"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낙찰 확인을 위한 메일으로, 옥션 종료와 거의 동시에 받게 됩니다. 만약, 옥션 결과 페이지에 나타날 낙찰자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원하는 비더네임을 명시하여 답장을 보내면 반영하여 처리해줍니다. (예: Momos Coffee → Momos Coffee & Busan Group)

낙찰 확인 후의 컨택 포인트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스톤웍스 옥션의 경우에는 판매자(농장) 측에서 다이렉트로 연락이 옵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에 관한 부분을 판매자와 직접 논의할 수 있고, (여러개의 랏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닌 이상) 물량도 적으므로 핸들링이 간단한 편입니다. 컵오브엑셀런스 옥션의 경우에는 낙찰 확인 메일에 농장주가 아닌 수출업자 혹은 현지국가의 컵오브엑셀런스 협회에 속한 코디네이터의 연락처 정보가 옵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구매자가 먼저 컨택하여, 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에 관한 부분을 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지정통지서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지정통지서 (Shipping Instruction)
판매자 측에서 인보이스를 바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수신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후,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BUYER란에 서명을 하고 스캔한 이미지를 회신해주면 됩니다. 그 이후 인보이스를 받게 되면, 인보이스에 나타난 금액과 은행 정보를 바탕으로 외환 송금을 진행합니다. 외환 송금의 시스템은 은행별, 송금국가별 차이가 있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많은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물품 대금 지급의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환율 우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송금 처리 후에는 은행에서 받은 확인증(영수증)을 스캔하여 판매자에게 보내주면 서로 편리합니다.

컵오브엑셀런스 옥션의 경우, 간혹 계약서 및 인보이스 수신 이전에 선적지정통지서 작성을 요구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Shipping Instruction에는 판매자/수출업자가 봤을 때 B/L(선하증권)에 꼭 기재가 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보들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 정보로는 바이어의 회사명, 연락처 정보, 구매한 물품 정보, 물품 대금 지급 방식, 선적 정보 등이 있으며, 바이어가 수입자 Importer가 아니라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정보도 함께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계약, 물품대금 지급, Shipping Instruction 전달이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바이어로서 해야할 업무의 첫단계는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운 송

바이어가 해야할 두 번째 업무, 운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통 포워딩 전문 업체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포워딩 업체의 항공 또는 해상운송 담당자에게 구매한 물품의 정보와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보통 인보이스와 계약서 등에 기본 정보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 서류들을 전달하면 됩니다.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포워더는 운송 스케쥴과 운임 조건 등을 현지 파트너와 협의하여 구매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운송에 관한 부분은 차후에 따로 자세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톤웍스 옥션 물품은 수량이 적으므로 주로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임 및 스케쥴은 포워딩 업체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지만, 농장주 측에서 직접 알아봐주기도 합니다. 농장주 쪽에서 조율해주는 운임은 다이렉트로 컨택하기 때문에 단 하루, 이틀이라도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포워딩업체를 거친 운임은 현지 파트너 조회 및 시차 문제가 있어 상황에 따라 빠른 조회가 어렵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저렴한 운임을 제공해주므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스케쥴 및 운임에 관한 부분은 전적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컵오브엑셀런스 옥션랏처럼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물품이라면,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옥션랏 하나로는 컨테이너를 다 채울 수가 없으므로, 운송비 절감을 위해 그 국가에서 함께 실어올 물품이 있다면 시기를 맞추어 콘솔하여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컨테이너 유형 역시 선택 가능합니다. (일반 Dry컨테이너/냉장 Ref컨테이너) 더운 여름철의 경우에는 특히,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 외부의 컨디션에 따라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 역시 높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온도의 변화는 커피에 있는 다양한 유기화합물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생두 퀄리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모스는 생두 운송 시 대부분 "냉장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 사용이 힘든 것은 지역에 따라 냉장컨테이너가 없거나,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는 것도 힘든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냉장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 사용료가 훨씬 비싸지만, 컨테이너 내부의 적정온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항해기간은 물론 하역시까지도 제품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통관 및 입고

판매자/Shipper 측에서는 물품 선적 이전에, 물품을 수출시키기 위한 서류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B/L(선하증권), Phytosanitory Certificate(식물검역증),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Packing List(포장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품 선적 후 이 서류들의 원본을 구매자/Buyer나 수입자/Importer에게 안전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통관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므로, 이 서류를 받은 구매자는 안전하게 포워더에 전달합니다. (전달 이전에 스캔 혹은 복사를 해두면 좋습니다.)

통관 유형에는 자사제조용/판매용이 있습니다. 자사제조용은 말 그대로 생두(원재료)를 로스팅(가공)하여 원두(제품)로 만들기 위한 용도, 판매용은 가공 작업 없이 생두 그대로의 유통을 위한 용도입니다. 통관 유형 결정에 따라 검역 절차가 달라지는데, 자사제조용은 식물검역만을 진행하며, 판매용은 식물검역 후 추가적으로 식품검역에 통과해야 합니다.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라벨스티커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물품 및 수입원의 정보 등이 표기됩니다. 아이템에 대해 꼭 한 가지 유형으로 통관을 할 필요는 없으며, 수량을 분배하여 자사제조용, 판매용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사제조용은 3-4일, 판매용은 7-10일이 소요됩니다. 각 통관 유형 진행 절차 및 비용에 대한 비교도 이후에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작업이 완료되면, 물품의 입고가 가능해집니다.

비딩 금액 대비 생두 단가 산출_

정확한 원가 정산 이전에도 대략적인 가늠이 가능합니다. 인보이스를 통해 지불한 1KG당 물품가에, 예상되는 운임 및 제반비용을 더하면 됩니다. 이때 예상 운임 및 제반비용은 총 물품가의 20%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물품가 곱하기 1.2)

예) Auction Price $10.10/lb 인 경우 - 제품가 10.10달러에 파운드-킬로그램 환산비율인 2.2, 송금당시의 환율 1,125원, 운임 및 제반비용 20%를 뜻하는 1.2를 곱해주면 대략적인 물품단가가 산출됩니다.
이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 $10.10 * 2.2 * 1,125원 * 1.2 = **29,997원** 이라는 예상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원가 정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물품가 정보와 운임, 통관비용을 포함한 제반비 정보입니다.

낙찰가/lb	$10.10	통관수수료	33,000원	창고료	12,424원	관세	490,820원
총중량	993kgs	취급수수료	55,000원	하역료	36,443원	부가세	2,503,220원
물품가	$22,447.50	검역수수료	165,000원	운송료	100,000원	해상운임	238,316원
송금일 환율	1,125.00원	정밀검역료	1,069,200원	보세운송료	26,488원	라벨작업비	126,500원

다음 표는 물품가와 제반비용 합계에 따른 생두 원가 계산 테이블입니다.

물품가 / 제반비용에 따른 원가계산 테이블	1. 금일 환율에 따른 총 물품가	25,253,437원
	2. 제반비용 총 합계금액	4,856,411원
	3. 물품가 + 제반비용 합계 금액	30,109,848원
	4. 총 금액 / 중량(993kg)	**30,322원**

대략적인 원가 예상 29,997원, 실제 계산에 따른 원가 30,322원으로 오차는 325원입니다. 운송 방식과 컨테이너 타입, 통관 유형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원가 파악은 가능하니, 입고 이전의 가격 예상과 프로모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모스의 생두 수입 절차 가이드 - 옥션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편을 마칩니다. 다음 편에서는 생두 수출입 전문회사를 통한 구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UESTIONS & FEEDBACK,

모모스커피 _ WWW.MOMOS.CO.KR / 070.4134.7034 / INFO@MOMOS.CO.KR

CONTACT INFORMATION,

스톤웍스 _ COFFEE.STONEWORKS.COM
컵오브엑셀런스 _ CUPOFEXCELLENCE.ORG
전자통관시스템 _ PORTAL.CUSTOMS.GO.KR
포워딩/에이엔에스플러스 _ WWW.ANSPLUS.CO.KR / 02.323.6552
포워딩/제임스포워딩 _ WWW.JAMES.CO.KR / 02.567.3030
포워딩/한도종합물류 _ 051.441.3945
관세/둘리관세사 _ 051.469.6022